

第62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9月19日(金) 午前11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 第63回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2.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審査된案件

1. 第63回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崔東煥議員外8人 發議) 4面

(11時11分 開議)

1. 第63回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委員長 高允根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절을 잘 새겼습니까?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의를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3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회기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13일간이며 본 임시회기간중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최동환위원의 여덟분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안건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장님,

○金榮植委員 김영식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13일간을 하자고 그러는데 앞으로 잔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委員長 高允根 이번 13일 하게 되면 7일잔이 남습니다.

○金榮植委員 앞으로요.

○委員長 高允根 네. 임시회의가 7일간 남습니다.

○金榮植委員 그러면 7일은 10월달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 高允根 그것도 대충 의장님 안은 10월 말일경 정도, 11월 초순 이렇게 겹쳐가지고 할 계획을 아마 잡고 있습니다.

○金榮植委員 본위원 생각에는 13일 이렇게 길게 할 것이 아니라 한 열흘정도 하고 10월달에 뭐 3,4일이라도 하고 11월달에도 정기회가 25일부터 정기회가 되니까 11월달에도 한 3,4일간하고 이래서 나누었으면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高允根 이번에 며칠간이요?

○金榮植委員 한 열흘이나 9일이나요.

○委員長 高允根 한 10일간하고, 그러면 이제 10일잔이 또 이렇게 남는데 5일 5일 이렇게 나누어서 하자,

○金榮植委員 10월달에 한 번하고 11월달에 정기회 하기전에 임시회 한번 하고 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번에 13일을 하고 10월 하순에 하고 정기회까지 간다고 그러면 너무 공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나머지를 활용을 하더라도 짜임새있게 모양 좋게 또 우리 의회가 너무 휴회하는 것 보다는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高允根 이대일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大一委員 이대일위원입니다. 저도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가능하면 저는 바쁜 말일자를 비껴서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중순경 정도로. 대부분 말일 되면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高允根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宋夏星委員 지금 며칠간 남았다고 했습니까?

○委員長 高允根 7일간 남았습니다.

○宋夏星委員 토달 며칠이요?

○委員長 高允根 토달 20일간 남은 거죠.

○宋夏星委員 20일을 균등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委員長 高允根 몇번으로요.

○宋夏星委員 세 번으로 김영식위원이 얘기 했듯이 세 번으로. 추경있으니까 한 번하고 6,7일 두 번하고,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할 일도 없이 매일 모여서 일당 타먹기 위한 회의를 하지 말고 쓸모있는 회의를 해 주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만들고 자료도 연구하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자꾸 모이는 것만 하면 실상 하는 것 없이 내용도 없이 별 것 해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委員長 高允根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장님이 저하고 상의한 의장님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3일간 회의일정을 잡은 것은 이번에 구정질문을 문경주 위원님께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구정질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구정질의를 이틀간 하다보면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해서 날짜가 13일간했는데 3일이 공휴일이 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10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끼었고 그래 가지고 아주 13일간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일 짜를 비교한다면 한 8일 정도나 9일정도 기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우리가 20일 남은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면, 구정질문하면 시간여유도 있고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4일간 잡았습니다. 그러

면 4일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추경 예산안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한 이틀이나 3일정도 걸리지않겠느냐,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활동을 위해서 4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추경예산안 다루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예결위원회를 이틀간을 주었습니다. 예결위원장만 구성해 가지고 이틀간의 예결위원회를 하루갔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틀간을 구성해서 이렇게 짜임새있게 했고, 저는 이것을 하루만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다 분석을 해 보니까는 하루갔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추경이 그래서 이틀간을 잡았고, 구정질문을 이틀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전처리 그래 가지고 본회의하고 폐회하고 그래서 본회의가 이틀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13일을 해 보니까 아주 그것도 짜임새가 딱딱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장님이 이런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여기서 회기를 김영식위원님이나 이대일위원님 말씀대로 5일씩 나누어서 한다고 그런다면 아주 일정이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들어갑니다. 정기회가 들어가가지고 또 7일간을 어떤 안을 잡고 있느냐 하면 나머지 13일하고 7일간, 이것을 위원님 알아야 됩니다. 7일간은 비교견학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비 규정을 보게 되면 여비가 항상 불용액으로 남고 그래서 여비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1,270 만원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써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불용으로 남아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 때에는 상임위원장 간사 해 가지고 부산인가 어디를 갔다 와서 이것을 소모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여러가지로 세미나니 이런 연수를 간다는 것도 상당히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7일간 남은 것을 회기로 잡고 7일 동안에 비교시찰 부산을 가든가 목포로 가든가 대구로 가든가, 강원도로 가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비교 시찰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이런 방향으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가만 보면 별도로 또 7일간 임시회의를 아까 우리 송하성위원장 말대로 우리가 날짜만 채울려고 그런식으로 자꾸 비춰지고 하니까 7일간을 우리 임시회의 일정내에 비교전학이라는 타이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한다고 그러면 이번 13일간하고 잔여 7일간하고는 상당히 심사숙고한 의장과 사무국에서 이런 것이 짜임새있게 된 것 같지않느냐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宋夏星委員 한말씀 더 드릴립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생활도 더 중요하지않습니까? 13일동안이라는 일정중에서 3일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0일 동안이면 너무 깁니다. 10일동안을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우리들이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 기니까 사실은 7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렇게 10일까지 연장해서 할 필요성이 없지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요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할 수 있는 날 일요일이 낀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날짜를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 개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요.

○委員長 高允根 제가 한말씀 드려요. 추경예산안이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金榮植委員 본위원 생각에는 여기 9월 25일부터 이렇게 해 놓았는데 9월 24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0월 2일까지 하면 9일입니다. 9일간 하면 일요일 하루가 이제

○委員長 高允根 며칠부터요?

○金榮植委員 24일부터. 25일에서 하루 당겨서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만 28일날 일요일이니까 놓고 그러면 9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근 9일이나 10일 가까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22일날까지 하면 9일합니다. 9일 하면 딱딱한 일정이지만 이번에 안되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11일 남은 것은 그때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짚으면 좋겠다.

○委員長 高允根 하루 앞당기면 우리 공고일자가 안맞아 가지고 안됩니다. 공고일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金榮植委員 공고일이 상관없죠. 오늘해서.

○委員長 高允根 그렇습니까?

○金榮植委員 그러면 내일 하면 본위원이 알기는 내일부터 하니까 그렇게 짜고 다음에 11일 남은 것은 또 그때 어떻게 하더라도.

○李龍燮委員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시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高允根 그럴까요. 위원님들 한10분간 좀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뭘 이것을 가지고」하는 이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조정해 가지고 하죠」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25分 停會)

(11時40分 續開)

○委員長 高允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장이 협의 요구한 원안대로 하는데 '97년10월1일부터 10월2일 예결위원회 활동을 '97년10월4일과 10월6일에 예결위원회 활동으로 서로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宋夏星委員 다음에는 일정을 다 만들어 놓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운영위원들 몇 분이라도 불러서 개략적인 이야기를 운영위원들이 듣고 나서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지. 괜히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원안통과 해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 전부다 부를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이전에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들 몇 분이라도 불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하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미 사무국하고 의장하고 전부다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의논해 봤자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委員長 高允根 그러면 이것을 통과해 놓고 나서 그것을 한번 의논하기로 하고요,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하고 나서 송위원님 말씀을 토론할까요? 그렇게 낫겠죠?

2.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崔東煥議員外8人 發議)

(11時42分)

○委員長 高允根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최동환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崔東煥委員 최동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15명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高允根 예,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추천받아 1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1차 추경안을 심사하자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金榮植委員 김영식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니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5인 상임위원회별로 5명을 할게 아니라 숫자를 좀 줄이자 하는 겁니다. 본예산 같으면 15명으로 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추경이고 하니가.

○委員長 高允根 몇 명으로 줄였으면 좋겠

습니까?

○金榮植委員 3명이나 4명으로해서 좀 줄였으면,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하게 그냥 5명씩 하죠」하는 이 있음)

○金榮植委員 그런데 많이 했을 때 사실상 들어가놓고 관심이 없으면 말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일만 복잡해 저요.

○宋夏星委員 그런 것도 있지만 김영식위원님 이런데요, 한번도 참여 안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5명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여태까지 예산결산을 한번도 참여를 안해 본 사람들이 참여의식도 있으니까 참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의에 한번도 참여 안한 사람도 있으니까 초동고시라도 좀 보고 끝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원안대로 동의 합니다」하는이 있음)

○崔東煥委員 예년의 경우 항상 5명을 초과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5명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高允根 김영식위원님이 질의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文京周委員 문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입니다.

중전의 예를 보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로 선임된 분은 꼭 참석할 수 있는 분으로 하여금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高允根 그러면 문경주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6分 散會)

○出席委員 13人

高 允 根	李 承 魯	金 壽 榮
宋 夏 星	崔 桂 洛	崔 東 煥
金 南 孝	金 榮 植	朴 景 錫
李 大 一	金 甲 濟	丘 在 永
文 京 周		

○缺席委員 2人

徐 榮 振 許 東 翼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崔 石 根